

# 안보리 ‘이란 제재 복원’ 회의…미 vs 중·러 충돌

### 미 “중·러, 이란 보호”…중 “위기 선동”·러 “공포 과장” 주유엔 이란 대사 “호르무즈 봉쇄 않을 것…안보는 권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두고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란 제재를 감독하는 이른바 ‘1737 위원회’ 운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이란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가 가동되지 않았으며 회의 개최에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중·러), 기권 2표(파키스탄·소말리아)로 회의는 진행됐다.

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이란 제재 이행을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방적 조치와 제재는 핵

합의 훼손이라고 맞섰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보호하려 1737 위원회 활동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츠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미사일 기술 이전·거래 금지, 관련 금융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부과될 유엔 제재는 자의적 인 게 아니라 이란의 핵·미사일, 제재식 무기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쑹 주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을 이란 핵 위기의 “선동자”라 부르며 이란 핵위기를 촉발한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복원을 두고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를 탈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취했다며, 제재가 특정국의 편협한 정치 이

익을 위한 도구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미국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점을 언급하며, 스냅백 가

동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란이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재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JCPOA에 포함된 스냅백 제도는 합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유엔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장치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의 종료 후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지위를 남용해 이미 만료된 의제를 두고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는 협소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 권한과 절차를 노골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스냅백 절차는 성실하게 JCPOA에 참여해 온 국가들만이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겨냥해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국은 이를 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NASA, 4월 1일 ‘아르테미스II’ 발사

### 올해만 두차례 연기 끝에 새 발사일 정해

미국의 달 궤도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II’가 있던 연기 끝에 다음 달 발사될 전망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 ‘아르테미스II’ 발사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19일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과 우주선 ‘오리온’을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센터 기체 조립동에서 39B 발사대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아르테미스II’는 당초 올해 2월 달로 향한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발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월 발사 전 최종 예행연습에 해

당하는 웨트 드레스 리허설 과정에서 수소 연료 누출 문제가 확인돼 계획이 중단됐고, 이후 3월 6일을 발사일로 지정했지만, 헬륨 흐름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발사 시점이 밀렸다.

로리 글레이즈 NASA 탐사시스템 개발 부국장 직무대행은 “아르테미스 4월 1일 발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4월 2

일도 잠재적 발사 가능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발사가 이뤄진다면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 NASA 소속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스 등 4명이 열흘에 걸쳐 달 궤도를 선회해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

기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달 궤도 유인 비행이다.

NASA는 이후 ‘아르테미스III’를 띄워 지구 궤도에서 랑데부(상호 접근 기동) 시험을 진행하고,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IV’를 발사해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